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색채의 감정적 효과에 대한연구

유 동 관 Yoo, Dong Kwan
경주대학교 예술학부 산업미술학 전공

研究論文 Original Articles ● Received : Dec. 28. 2000 ; Accepted : April. 3. 2001

1. 서론

1-1 연구목적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어린이와 색채

2-1 어린이의 색채개념
2-2 어린이의 색채선호

3. 색채의 감정적 효과

4. 어린이그림책과 색채

4-1 그림책일러스트레이션의 색채표현
4-2 그림책일러스트레이션의 색조변화

5. 결론

참고문헌

(要約)

어린이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서로 긴밀하게 조화된 형태로서 어린이가 최초로 접하는 문학이다. 어린이그림책은 어린이의 주변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림을 통한 풍부한 이야기 전달로 창의력과 사고력, 정서, 지적능력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어린이그림책에 표현된 색채는 형태와 질감 등 다른 조형요소 못지 않게 중요하며, 어린이의 감정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색채감정을 기초로 한 어린이그림책의 색채표현은 대단히 중요하다.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사용된 색채는 주제와 배경의 구분뿐만 아니라 그림책 속에 묘사된 등장인물의 움직임과 감정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줄거리의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여 어린이들에게 기쁨, 슬픔, 즐거움, 놀라움,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을 전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색채의 상징성과 이미지를 연구, 분석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느끼는 색채개념 및 감정과 이미지 연상 등을 토대로 국·내외 출판되고 있는 어린이그림책을 선정하고, 선정된 어린이그림책에서 표현된 다양한 색채대비효과, 색채흐름, 색조변화, 그리고 각 장면의 분위기와 줄거리의 흐름에 따른 색채사용을 분석하고, 어린이그림책을 제작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개성과 예술성으로 수준 높은 어린이그림책을 제작할 수 있는 색채사용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hildren's Picture Book is the literature with which children face for the first time as a form of close harmony between text and picture. The picture book shows what is happening and also what may happen in the children's surroundings and takes great influence on their creativity, thinking ability, emotion, and intellectual ability by delivering affluent story through the pictures.

The color expressed in the children's picture book is as much important as other formative elements such as shape and texture, and the expression of color on the basis of color emotion is much more important in that it appeals to the children's feeling. The color which is expressed through the illustration of children's picture book conveys distinctly the motion and feeling of characters who are expressed in the picture book as well as distinction of theme and background and expresses persuasively the whole process of plot and atmosphere so that it might convey various emotions such as delight, sorrow, pleasure, wonder, and fear to children.

This thesis aims at analyzing various effects of color contrast, process of color, hue variation, and use of color according to the atmosphere of each cut and the process of plot by selecting the children's p:cture books which were published abroad and home on the basis of color concept, emotion, and image association which children feel in order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symbolism of color and emotional effect expressed through the illustration of children's picture book, and presenting a direction of color use to produce high-level children's picture book with illustrator's individuality and artistry.

(Key words)

Color expression, Children's Picture Book, Illustration

1. 서론

1-1 연구목적

어린이의 감정은 성장하는 동안 많은 시각적 감각과 경험을 통해 발달된다. 특히 시각적 경험을 통한 감성발달은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한 시각경험은 어린이성장에 있어 시각적 즐거움과 함께 사물이나 형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형성시킨다. 또한, 어린이에게 동정과 사랑을 심어주고 어린이의 감정을 풍부하게 하며,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서 상상력, 사고력의 발달을 가져오고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한 창의력과 풍부한 언어 표현능력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이 어린이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1)]

첫째, 그림이 전달하는 정서와 감정이다. 정서와 감정은 어린이의 성격형성에 큰 의미를 가지며, 풍부한 감정, 세련된 표현, 감정이입의 경험, 감동할 줄 하는 정서 등을 길러준다.

둘째, 그림이 어린이의 상상력, 창의력, 심미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어린이그림책은 어린이의 시각을 통해 전달되고 이해된다. 이러한 시각경험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과 예술을 보는 심미안을 길러준다.

셋째, 그림 그 자체의 영향이다. 어린이가 시각을 통해 경험하는 이미지는 소리나 온도, 손의 감촉 등과 같은 다른 감각기관을 통한 경험보다 강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형태는 인물이나 사물의 성격특징, 인격양식을 반영하지만, 색채는 어린이의 생활환경과 심성에 아주 깊은 영향을 끼치며 구도와 선 ,질감 등도 어린이에게 강한 인상을 줌으로서 시각적 자극을 유발시킨다.

넷째, 그림이 전달하는 내용이다. 그림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명료하게 해주고 문장이 설명할 수 없는 세밀한 부분까지 묘사함으로서 본문 이외의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은 어린이의 시각과 마음을 자극하여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과 꾸밈없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어린이가 느끼는 색채에는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놀라움 등과 같은 다양한 감정이 있으며, 내면세계를 아름답게 순화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색채는 감정과 느낌에 호소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감각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있어 형태, 색채, 질감 등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분위기를 어린이의 시각을 통해 보이도록 그려내는 일러스트레이터의 독창적인 예술성을 바탕으로 하는 어린이 그림책의 색채는 주제와 배경을 구분 짓고, 사물의 감정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며, 그림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고려한 이야기의 진전, 그리고 절정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표현함으로서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감정을 전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출판되고 있는 국내·외 어린이그림책을 중심으로 어린이의 색채개념, 색채선호도와 연관지어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색채의 감정적 효과를 분석, 연구하였다.

또한,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을 표현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다양한 정서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색채대비, 색채흐름, 색조변화 등을 통한 감정전달 방법과 각 장의 내용에 알맞은 화면구성, 줄거리의 흐름을 고려한 색채사용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어린이들은 생후 4~5개월부터 형태와 색채를 지각하는데 3세 이전의 아기들은 색채보다 형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빨강, 노랑 등의 따뜻하고 명도, 채도가 높은 색상에 시선이 끌리며, 2~4세, 2~5세에는 형태보다 색채에 민감하며 현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아져 표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상상력이 발달하게 된다.[2)] 이와 같은 발달단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색채와 형태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4~5세에서부터 그림책을 보기에 적정한계로 추정되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 어린이가 접할 수 있는 어린이그림책을 선별하고 선별된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색채의 감정적 표현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어린이그림책을 중심으로 화면의 분위기, 문장과 내용의 흐름에 알맞은 색채 표현, 그리고 색상, 명도, 채도대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색채대비를 분석하고, 각 색채간에 이루어지는 상관 관계를 파악한다.

2. 어린이와 색채

2-1 어린이의 색채개념

세상의 모든 물체는 색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처럼 색채는 우리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희·노·애·락 등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수시로 작용을 한다.

색채에 대한 연구는 공학, 의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계열 등 폭넓은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어린이가 그린 그림의 색을 놓고 어린이의 성격과 심리를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 색채는 어린이가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 팽창되어 폭발하는 색과 수축되어 움츠러드는 색, 눈에 잘 보이는 색과 보이지 않는 색, 화려한 색과 수수한 색 등과 같이 어린이의 생활환경과 학습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흰색과 검정색의 배색에서 흰색은 더욱 희게 보이는 효과라든가 검정색 바탕 위의 노란색은 한결 돋보이는 것처럼 색이 가진 성격과 대비효과에 따라 대단히 복잡성을 띤다.

색채에 대한 어린이의 반응은 비교적 예민하며 인간의 본능과도 관계가 있다. 쿡(W.M Cook)과 링(L, Ling)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는 성장해 가면서 색채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점점 증가되어 간다고 한다.[3)] 즉 3세 이전의

1) 어린이 도서연구회 : 동화 이렇게 보세요, 웅진닷컴, 24-31, (1996)
이상금, 장영희 공저 : 유아 문학론, 교문사, 104-107, (1999)
김현희, 박상희 공저 : 유아 문학교육, 121-123, (1999)

2) 김정 : 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창지사, 129-187, (1989)
이현섭, 김상윤, 추정선, 조선희 공저 : 아동발달심리, 학지사, 227-280, (1999)

유아가 물체를 지각하는데 색채보다 형태로 짝을 짓는 경향이 높은데, 이는 색채보다 물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물체나 형태를 지각하는데 물체의 이름을 알기에 앞서 여러 형태를 정확히 구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색채지각의 반응은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순이며 남아와 여아의 색 개념 차이는 없지만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보다는 빨간 계통의 색을 좋아한다. 빨강, 초록, 노랑, 파랑 등 네가지 색에 대한 인지발달은 어린이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색채를 짝짓고 이름을 부르는 일이 점점 정확해졌으며, 색채를 분별하는 것이 색채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 먼저 발달해 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사실은 언어로서의 상징이, 먼저 발달된 색의 개념에 따라 학습되어짐을 알게 해준다.

리드(H. Read)에 따르면 어린이는 고정된 색채에서 탈피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한다.[4] 가령, 자기가 좋아하고 강한 인상을 받은 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파란 하늘이 잿빛으로, 나무는 갈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어린이의 색채개념은 먹는 것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오렌지 색 이라든가 딸기 색, 사과 색, 배 색 등을 쉽게 익히게 된 다음, 주위에서 익혀진 하나 둘의 색채가 차츰 넓어져 간다. 그러나, 색을 알아도 막상 그림을 그릴 때는 헛갈리는 수가 있다. 즉, 5세 이전까지는 대상의 색과는 관계없이 그냥 칠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5세 이후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상의 색과 같게 칠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게 된다.

위와 같이 어린이들은 시각적 경험을 통해 정서와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시각적 경험에서는 형태와 색채, 질감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간단명료한 형태와 명도, 채도가 높고 따뜻한 색 계통의 주목성이 높은 순색계열의 색상들을 선호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색채에 대한 시선의 끌림으로부터 점차 다양하고 재미있는 조형적인 면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빨간색, 주황색, 분홍색, 노란색과 같은 따뜻하고 밝은 색을 선호하는 것에서부터 차갑고 이지적인 파란색, 녹색을 더 좋아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자제력과 이성이 발전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로웬펠트(V. Lowenfeld)의 저서 (창의적, 정신적 성장 Creative and Mental Growth)에서 언급한 색채개념과 (미술을 통한 성장 Growth through Art)에서 묘화적 발달단계와 지각단계를 참고로 유아 후기에서 아동 중기까지 어린이의 색채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유아후기(4~6세)

대상의 색과는 무관한 색을 사용하고 색채보다는 대상에 충실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상을 색칠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식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처럼 작용하지 않고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린다. 이 연령에서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받은 강한 인상의 색이라든가 좋아하는 색을 주로 사용하며 색채개념은 약하지만 자신의 욕구와 동기에 따라 색을 사용한다. 형태표현은 원시미술과 비슷한 표현양식을 보이며 이집트의 벽화처럼 다시점의 사물을 그린다.

아동전기(7~9세)

창조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시기로서 대상과 색채의 자연스런 관계를 맺는다. 색과 사물과의 관계를 발견하여 사실적인 색을 사용하게 되며, 색채사용도 대상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안개 낀 하늘색, 저녁 노을 의 하늘색 등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파랗지 않은 누런 하늘을 그릴 수도 있는데, 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객관적인 색채개의 단계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려는 도식적인 그림을 그리며 공간관계의 일정한 질서를 발견하여 사물을 서로 관련시켜 그린다. 그림중심의 책에서 글 중심의 책으로 옮겨간다.

아동중기(9~11세)

대상의 색을 맞춰 그리려는 딱딱한 표현에서 벗어나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색채가 등장한다. 색의 명암이나 그림자, 배경처리 등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사물을 보다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리얼리즘의 시초 단계이다.

오늘날 어린이들은 과거에 비해 풍부하고 화려하게 채색된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그림책을 통해 시각적 경험을 쌓고, 다양한 색채 이미지들을 전달받는다.

다음은 알슐러(Alschuler)와 해트윅(Hattwick) 그리고 아사리, 김정의 조사에 따른 색채 이미지를 색상별로 조사, 분석한 내용이며 지역, 환경, 성별, 나이, 교육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6]

◦ 빨간색 : 지역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불, 피, 장미, 사과, 태양 등을 연상한다.

◦ 파란색 : 바다, 하늘, 파도, 파랑새, 물 등을 연상한다.

◦ 초록색 : 산, 풀밭, 나뭇잎, 들판, 새싹 등을 연상하고 있다.

◦ 분홍색 : 일반적으로 진달래, 코스모스 등을 가장 많이 연상하는데, 그 외에도 남자어린이는 모자, 잇몸을, 여자어린이는 드레스, 리본 등을 각각 연상하여 남녀의 성차를 보이고 있다.

◦ 보라색 : 포도, 제비꽃, 나팔꽃, 가지 등을 연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어촌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성게를 떠올림으로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역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주황색 : 감, 귤, 노을 등을 연상하지만 도시의 어린이들 중 많은 수가 귤과 함께 오렌지를 연상하고 있다.

◦ 회색 : 돌, 구름, 시멘트, 연기, 건물 등을 떠올리는데 어촌의 어린이는 등대를 떠올리는 어린이도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에게는 신변의 동식물이나 먹는 것 등 구체적인 색깔의 연상이 많고 어른에게는 사회 생활과 관련된 추상적인 색깔 연상이 많다. 가령 붉은 색깔을 보면 불을 생각하고, 초록색을 보고 초원을 연상하듯이 구체적인 사물을 연상할 때와 붉은 색깔을 보고 정열을, 초록을 보고 청춘을 생각하듯 추상적인 관념을 연상할 때가 있다. 어린이들의 입장은 구체적 연상의 색깔 표현쪽에 가깝다. 따라서 객관적 현

---

3) 김정 : 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창지사, 131-334, (1989)

4) 김정 : 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창지사, 131-334, (1989)

5) 문형준 : 아동미술 실기고실, 미진사, 20-57, (1997)

로웬펠트(V. Lowenfeld)는 아동 발달단계를 난화기 2-4, 전도식기 5-7, 도식기 7-9, 유희기 9-11, 의사실기 11-13, 사춘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언어발달이 현저하며, 자기중심적 특성이 강한 만6세 이하의 유아기와 신체적, 지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기로 구분 지었다.

6) 김재은, 소상진 공역: 아동화의 심리분석, 학연사, 61-91, (1986)

실보다는 자신의 욕구, 감정 등이 어른에 비해 월등히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문제는 어떤 색을 좋아하다가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싫증을 느껴 다른 색으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말하자면 어린이가 어떤 색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으로 어린이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심리적 의미를 깨트리는 색채가 어린이의 그림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

2-2 어린이의 색채 선호

색에 대한 어린이의 선호는 나이가 어린 연령층일수록 명도, 채도가 높은 따뜻한 색을 선호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색채의 선호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형태나 질감 등의 조형요소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어린이의 색채선호는 환경이나 지식습득 등에 따라 차이가 나며, 같은 색상이라도 색이 차지하는 면적과 다른 조형요소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색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기도 하고, 본능적인 행동이나 연상을 갖게 하는데 어린이가 그림을 그릴 때 좋아하는 색채 한 가지만 선택해서 그리라고 했을 때 어떤 색이 많았는가에 대해 여러 조사[7]가 있으며, 심리학 분야에서는 어린이 성격과 색채를 관련시켜 조사한 색채 선호도, 기호도 등도 있다. 어떤 것이 정확하며 타당성 있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전부 가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방법이지 결론이 아니며 환경, 습관, 교육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표1,)어린이가 좋아하는 색채순위(숫자는 선호 순위)[8]

조사구분 색	김 정		김 재 은		숭의여전 미술연구반		쯔가다		Valentine		KAT Z.D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공통
파 랑	1	4	1	1	1	4	2		1	1	2
초 록	2		2	2	3	2	5		3	4	3
노 랑	3	5	5			5	1	2	4	5	6
빨 강	5	1	6	6	4	1	3	1	2	2	1
주 황	4	2	4	4	5	3		3			5
고 동			3	3	2	6					
분 홍		3									
자 주								5			4
보 라		6		5	6			4			
연 두	6						4				
백 색									5	3	
검 정									6	6	

이 장에서는 어린이가 좋아하는 색과 색채 심리적 의미를 로웬펠트(Lowenfeld), 알슐러(Alssluler), 김정의 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

◦빨간색 : 매우 활발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외향적인 성격의 어린이가 좋아한다. 협동적이고 솔직함, 따뜻함의 성격을 갖고 있다. 남자어린이보다는 여자어린이가 즐겨 사용하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명시성이 높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남녀의 구분 없이 모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도시보다 시골에서 더 선호하는 편이다.

◦파란색 :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으로서 남자어린이가 즐겨 사용한다. 자제력이 강하고 생각이 깊으며 다소 여성적이고 내성적인 어린이가 좋아한다. 6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그 이전의 어린이보다 남녀 모두 점차 파란색을 좋아하게 된다. 시골보다는 도시어린이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노란색 : 신경이 예민하고 소심하며 의존적 경향이 짙은 어린이가 좋아한다. 그러나 명랑한 편이고 타인과의 관계는 비교적 좋다.

◦초록색 : 낙천적이고 신중하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노력형의 어린이가 좋아한다. 협조적인 성격이며 선호도는 남녀가 비슷하다.

◦보라색 : 지능이 높고 응용력이 강하며 고집이 세고 지구력이 강한 외곬의 어린이가 좋아한다. 여자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높고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색이다.

◦고동색 : 강요나 압박을 많이 받는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가 즐겨 사용한다. 의지력이 약하며 의존심이 강하고 항상 불만을 갖고 있으며 자기 주장을 잘 하지 않는다.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많이 쓰지 않는다.

◦흰색 : 몸이 약하고 고집이 세며 폐쇄적이고 내성적인 어린이가 좋아한다.

◦분홍색 : 내성적이며 표현력이 부족한 여자어린이들이 좋아한다. 솔직하고 순진하며 지구력이 약하다.

◦주황색 : 명랑하고 따뜻해서 친구들과 관계가 좋고 사교적이다. 여자어린이가 많이 사용하며 정이 많고 환상, 상상의 세계에 잘 빠져드는 어린이가 좋아한다.

◦검정색 : 부모의 사이가 원만치 못해 밝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가 좋아한다. 외형적으로는 복종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스스로 억제한다.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사용한다.

위와 같이 어린이의 색채기호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활동성이 높은 어린이는 파란색을 즐겨 쓰지 않으며 주황색을 좋아하는 남자어린이는 다른 색을 좋아하는 어린이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초록색, 주황색을 좋아하는 남자어린이는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성이 높으며 여자어린이는 빨간색, 초록색 등이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자들간의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생활환경, 습관, 교육, 연령 등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색채기호나 정서와 그림에 대한 상관관계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그림책은 형태, 색채, 질감, 그리고 각 장의 화면구성, 등장인물과 사물을 묘사하고 있는 선의 사용으로 어린이의 시각을 통해 직접경험을 할 수 있는 조형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색채의 사용은 본문의 내용과 성격에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선호하는 색채 위주의 사용이냐 매우 화려한 색채의 사용이냐 원색이냐 또는 흑백의 단조로운 색의 사용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이야기 속의 분위기와 내용의 진전에 따른 상황, 그리고 등장인물이 처한 감정상태와 부합되는 색채사용이 우선 되어야 한다.

3. 색채의 감정적 효과

7) 김정 : 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창지사, 334-364, (1989)

8) 김정 : 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창지사, 349-355, (1989)
위의 도표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어린이의 우선 순위는 파란색이 가장 많고 여자어린이의 경우 좋아하는 색은 빨간색이다.

9) 김정 : 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창지사, 351, (1989)

색채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그 색채가 우리의 가장 깊은 감각과 감정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들조차도 빨간색은 활동적이고 파란색은 차분하게 느끼며, 노란색은 주위를 환기시키는 색이다 라는 식의 색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수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색채는 수없이 다양하게 우리의 감각에 역동적으로 작용하며, 상황에 따라 자신의 고유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형태, 색채, 질감 등의 조형요소들 중 그 어느 것 보다 감각적으로 체험되고 시각을 통해 감정을 일으키는 심리현상인 것이다.

색채에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흔히 경험하고 있으며, 색에서 받는 인상 또한 색에 따라 다르고 그에 따른 감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10] 시각자극의 감정효과는 색채뿐만 아니라 형태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형태보다는 색채가 보다 명확하게 감정과 관련하고 있다. 가령, 밝고 선명한 색은 활동적이고 발랄한 느낌을 주며, 차갑고 가라앉은 색은 안정된 느낌을 준다. 명도와 채도가 높은 따뜻한 계통의 색은 흥분감을 주며, 명도가 낮고 차가운 계통의 색은 차분하고 진정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명도가 낮은 따뜻한 계통의 색이 거칠게 표현되면 분노를 나타내고, 명도가 낮은 차가운 계통의 색과 검정색은 공포와 불안감을 나타낸다.

그러나 색채와 감정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색이 감정과 연결되고 있는가는 개인차가 있는 반면 어느 정도 보편성도 있는데, 색채와 감정에 의한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온도감

색채 이미지에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착색된 것은 따뜻하게 느끼고 파란색, 청록색으로 착색된 것은 차갑게 느끼는데 이를 온도감이라고 한다.

빨간색 계통은 불이라는 구체적 대상으로 연상되고 따뜻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계통의 색을 난색(warm color)이라고 한다.

파란색 계열은 바다라는 구체적 대상에서 연상되기 때문에 차갑게 느끼며, 이러한 계통의 색을 한색(cool color)이라고 한다.

따뜻한 색은 빨간색·주황색·노란색 등의 색상으로 따뜻함을 느끼게 하며, 팽창·진출성이 있고 생리적·심리적으로 느슨함과 여유를 가진 색이다. 차가운 색은 청록색·파란색·청자색 등의 색상으로 차가움을 느끼게 하며, 수축·후퇴성이 있고 생리적·심리적으로 긴장감을 가진 색이다.

녹색·보라색·자주색·황록색 등은 따뜻함이나 차거움을 느끼게 하지 않으므로 난색·한색 어느 색에도 속하지 않는 중성색이라고 한다.

색의 온도감은 색상에 의하여 강하게 느껴지지만 명도에 의하여서도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높은 명도의 백색은 차갑게 느껴지며 흑색은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다.

2. 중량감

색채에서 색의 밝기와 어두움에 따라 무거움과 가벼움을 느낀다. 이는 색의 명도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명도가 낮은 색은 무겁게 느껴지며 명도가 높은 색은 가볍게 느껴진다.

이와같이, 색채의 중량감은 색상보다는 명도의 차이가 크게 좌우된다.

색입체에서 무채색 축 4~6을 중심으로 중명도라고 하고 그 위를 고명도, 아래를 저명도라고 하며 고명도의 색상은 가벼운 색으로, 저명도의 색상은 무거운 색으로 느껴진다.

3. 강약감

색은 매우 강한 느낌과 역으로 아주 약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를 강약감이라고 한다.

색의 강약감은 색의 밝기 즉, 명도보다 주로 채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명도에 관계없이 채도가 높은색은 강한 느낌을 주고, 채도가 낮은 색은 약한 느낌을 준다.

4. 경연감

색채의 강약감은 또한 색의 딱딱한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과도 관계를 가지며 경연감은 색의 채도 및 명도에 따라 좌우된다.

밝고 채도가 낮은 색과 따뜻한 색 계통이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중명도 이하에서 채도가 높은 색은 딱딱한 느낌을 주며, 색상은 차가운 색 계통이다.

5. 흥분과 진정

밝고 선명한 색은 원기 왕성하고 활발하며, 은은하고 가라앉은 색은 안정되고 차분하게 느껴진다.

또한, 흥분과 진정은 색채의 면적효과와 관계가 있으며 작은 면적의 색견본을 볼때와는 달리, 큰 면적의 색채는 명도가 상승된 것처럼 보인다. 비교적 큰 면적의 고채도 색상은 사람들을 압도시키기도 하는데, 이처럼 면적효과도 색채의 흥분. 진정을 표현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주로 고명도, 고채도의 따뜻한 계통의 색은 흥분감을 주는데 이들 색채가 우리들의 몸 전체에 걸친 기능적 촉진작용에 미쳐 맥박을 증가시키고 내분비 작용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차가운 계통의 색 중에서 저명도의 색상을 사용하면 진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속도감

황록색, 노란색, 빨간색과 주황색 등 장파장 계열의 색상은 속도감을 증가시킨다. 시간을 짧게 느끼지 못하는 파란색은 속도감이 떨어지고 청자색이 청색보다 나은 편이다.

둔한 느낌을 주는 색상은 청록색이며 고명도의 색상은 빠른 느낌을 준다. 또한 모든 색상 중에서도 저명도의 색은 둔한 느낌을 준다.

7. 계절

봄의 감정에 알맞은 어린 나뭇잎 색은 녹색띤 노란색이며, 햇빛이 닿은 곳은 lemon yellow, 가련한 화초는 연한자주색, 하늘은 보라띤 하늘색 등에서 느낄 수 있다. 늦은 봄이라면 하늘은 선명한 cobalt blue, 나무는 선명한 녹색과 파란색, 햇빛이 닿은 곳은 chrome yellow 등의 색채에서 느끼게 된다.

여름의 색채감정은 나무의 색은 짙은 녹색(forest green)이고 하늘은 감청색, 해변은 cobalt green, 그리고 찬 느낌을 주는 ice blue 등의 색채에서 느낀다.

가을의 색채감정은 하늘은 짙은 cobalt blue, 나뭇잎은 주황띤

---

10) 이경성 : 예술이란 무엇인가, 일지사, 30-32, (1984)
김학성 편역 : 디자인을 위한 색채, 조형사, 122-131, (1998)

노란색, 산들은 chrome yellow, 청자색은 가을의 쓸쓸함을 표현하는 고아한 색이며, 겨울의 색채감정은 회색의 차가운 색계통이다.

앞에서 나열한 색채감정을 종합해 보면 1.온도감 2.중량감 3.강약감 4.경연감 5.흥분과 진정 6.속도감 7.계절감 등으로, 어린이가 지각할 수 있는 색채감정은 간단한 색채형태에서 나타나는 감정 그대로를 표현하는 느낌이며 세부적인 미각·후각·촉각·청각적인 느낌이나 구체적인 시지각 감정을 나타내기는 어렵다.[11] 또한, 색채감정은 각각의 색채가 전달하는 심리적 효과로서 색의 어떤 표현감각이 사람의 감정에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며, 사람의 주관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도 많다.

어린이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사용된 색채는 이야기의 전달과 분위기, 등장인물의 감정상태를 전달한다. 가령, 고명도, 고채도의 따뜻한 색채사용은 밝고 기쁜 내용의 분위기와 감정상태를 전달할 수 있으며,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은 저명도, 저채도의 차가운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어린이그림책은 이러한 색의 감정효과를 화면마다에 사용함으로서 문장이나 그림이 전달하는 내용과 잘 어울려서 그림책에서 전개되는 감정표현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재 및 등장인물의 감정상태와 상반된 색의 사용은 어린이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과 내용에 알맞은 색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4. 어린이그림책과 색채

4-1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색채표현

어린이그림책에는 어린이의 입장에서 발상된 것과 어른의 입장에서 발상된 것이 있다. 어른의 입장에서 만든 그림책은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른의 논리와 발상이 강하게 표출되었기 때문이며, 이런 형식의 그림책은 어른들의 일방적인 사고와 논리를 말하고 어른의 기호와 취미에 맞는 내용이다. 따라서, 좋은 어린이그림책은 어린이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어린이의 발상이나 기분으로 그려낸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른의 입장에서 그려진 그림책이 아니라 어린이 스스로가 자신들의 세계에 대한 흥미와 친밀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림책이어야 하는 것이다.[12]

그렇다면 어린이가 친근감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 속에 빠질 수 있는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러스트레이터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개, 등장인물의 움직임, 이야기 구성에 어울리는 색조변화를 통해 어린이가 그림책의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글의 내용과 줄거리에 맞는 일러스트레이션이 현실감 있게 표현됨으로서 글과 그림이 일체가 되고, 그림 또한 예술성을 가미한 수준 높은 것이어야 한다. 어린이그림책에서 표현된 일러스트레이션은 단순히 문장의 설명이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이상으로, 등장인물의 움직임, 얼굴표정 등에 의해 문장이 설명할 수 없는 세부묘사와 작 장의 다채로운 변화로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13]

3. 어린이그림책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준높은 어린이그림책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어린아이 혼자서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강의 줄거리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어린이는 어린이그림책에 표현된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이야기의 세계에 들어간다. 따라서, 그림책에는 어린이가 흥미와 재미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은 반드시 색채가 다양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흑백의 그림이든 다채로운 색상의 그림이든 이야기의 내용과 일치할 때 어린아이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진다.[14]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밝은 색채만을 좋아한다든가, 귀엽고 예쁜 그림을 좋아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글과 그림을 통해 받아들이는 이야기 전체를 즐기며, 흑백의 그림이든 채색된 그림이든 그림의 표현방법에는 관계없이 받아들인다.

길벗어린이에서 출판된 「오소리네 집 꽃밭, 정승각 그림」은 앞부분의 회오리 부는 장면을 명도, 채도가 낮은 어두운 분위기로 표현하여 오소리의 놀라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묘사했다.

(그림1) 오소리네 꽃밭

그러나 꽃밭을 발견한 오소리의 감정은 화려한 색채로서 잘 전달되고 있다.

(그림 2) 오소리네 꽃밭

따라서, 어린이의 시각에서 표현된 일러스트레이션은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며, 흥미와 재미를 전해주는 것이다.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은 1차적으로 어린이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2차적으로는 어린이로 하여금 다양한 색채의 세계로 빠져들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야 하는데 그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1. 내용의 흐름에 맞게 색채의 흐름도 이어져야 한다. 그림책

11) 문형준 : 아동미술 실기교실, 미진사, 56-676, (1997)

12) 마쓰이다다시 지음, 이상금 엮 : 어린이와 그림책, 샘터, 73-77, (1990)

13) Bicknell, T.P. and Trotman, F. : How to Write Illustrate Children's Books and Get Them Published, WRITER'S DIGEST BOOKS, 59-65, (2000)

14) 마쓰이다다시 지음, 이상금 엮 : 어린이와 그림책, 샘터, 179-184, (1990)

의 내용을 보면 기쁨, 분노, 슬픔, 사랑 등의 감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감정들은 그와 어울리는 색채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15]

2. 이야기 전개방식을 도입→전개→절정→결말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가정 할 때, 내용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각 장면들에 표현된 색채들은 그 내용의 분위기를 충분히 공감시킬 수 있는 색채로 연출되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스토리 전개를 흥미유발→사건→흥분→평온과 고요 순으로 진행된다고 볼 때, 고명도의 따뜻한 색인 노란색과 주황색→고채도의 차가운 색인 파란색→저명도의 따뜻한 색인 빨간색→고명도, 저채도의 초록색과 같은 색상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변화를 주어 진행해 나가는 것이 내용에 알맞는 색채 표현중의 한 방법일 수 있다.

3. 주재와 배경을 구분지을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시각을 끌 필요가 있는 주요 부분은 색상이나 명도대비가 강한 색채를 사용함으로서 어린이에게 쉽게 내용을 인식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파란색과 빨간색의 색상대비, 그리고 노란색과 빨간색, 파란색의 명암대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재를 강조하는 배색으로 빨간색과 초록색의 강한 색상대비효과를 줄 수 있으며, 분위기에 어울리는 색채를 표현할때 같은 계열의 유사, 인접색상을 사용하여 분위기에 맞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4. 인물 또는 사물이 처한 분위기와 감정 상태에 알맞은 색채를 표현해야 한다. 특히 인물 묘사에 있어서 기쁨, 슬픔, 즐거움, 놀라움 등은 얼굴의 표정과 모습 등에서 묘사할 수 있는데 색채 또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즉, 기쁨과 행복에 충만한 따뜻한 색조를 얼굴 가득 표현함으로서 얼굴의 세부묘사를 뒷받침 할 수 있다.[16]

4-2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색조변화

색채는 형태, 질감과는 또 다른 점에서 인간의 감정 표현에 효과적이다. 어린이그림책에 표현된 색채는 음악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 그림책의 반복된 흐름이나 강, 약의 리듬으로 감정의 기복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색에는 빨강, 파랑, 노랑 같은 색상과 함께, 같은 색이라도 선명하거나 칙칙하게 느껴지는 채도,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명도가 있어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미묘하게 관계하면서, 그림책에서의 색채 분위기, 즉 색의 감정상태를 만들고 있다. 그림책은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 하나의 그림이 연속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과 화면 사이에도 색조가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색채에는 파란색 계통에서 차가움을, 빨간색 계통에는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성질이 있고, 노란색에는 명랑, 쾌활, 유연이라든지, 파란색에는 자극과 진정, 빨간색에는 진지함과 위엄, 사랑과 우아함 또는 정열 같은 상징적인 일면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다.[17]

어린이그림책은 이러한 색채효과를 화면마다에서 변화시킴으로서, 그림책에서 전개되는 감정 표현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으며, 화면구도에 어울리는 색조의 변화에 의해서도 이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Old Salt Young Salt, LOTHROP, LEE & SHEPARD BOOKS, TODD L. W. DONEY 그림」에서 제1장면은 이른 아침의 분위기에 맞는 저채도의 녹색과 파란색의 인접색상을 중심으로 안개낀 아침 풍경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3) Old Salt Young Salt 제1 장면

제3장면에서는 바다표현을 위해 밝은 파란색에서부터 어두운 파란색까지 그라데이션으로 처리하여, 잔잔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표현했다. 그러나 등장인물이 입고 있는 옷을 각각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현해 강한 색상 대비를 주었다.

(그림 4) Old Salt Young Salt 제3 장면

제11, 13장에는 낚시를 마친 두 사람의 흐뭇한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난다. 얼굴에 사용된 색채 또한 주황색을 가미하여 기쁨과 행복이 가득찬 표정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그림 5) Old Salt Young Salt 제13 장면

마지막 장면에서는 항해하는 꿈을 꾸는 어린이의 얼굴과 꿈속에 나타나는 항해 모습을 저채도의 보라색이 가미된 푸른 색조로 화면 가득히 표현하여 신비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 6) Old Salt Young Salt 마지막장면

15) 김중철 역 : 그림책론, 어린이도서연구회, 5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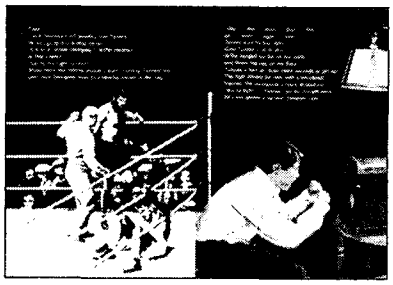
16) Berthe Amoss & Eric Suben : Writing and Illustrating Children's Books for Publication, WRITER'S DIGEST BOOKS, 60-62, (1995)

17) 김현희, 박상희 공저 : 유아문학 교육, 학지사, 115-121, (1999)

「Paper Boy, CLARION BOOKS, TED LEWIN 그림」에서는 수채화물감을 사용하여 밝고 경쾌하게, 사실적인 표현기법으로 채색되었으며, 검정색과 흰색의 강한 명함 대비를 배경으로 삽입하여 표현했다.

(그림 7) Paper B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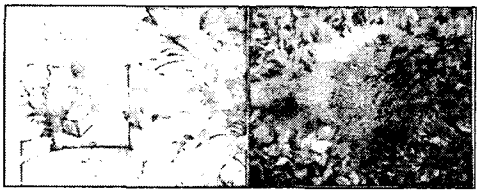
고명도의 밝은 색조와 밝고 어두운 흑백바탕이 조화롭게 어울려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흑백의 강한 명함대비는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생각하고있는 권투경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삽입하여 그림책을 보는 어린이들이 그림책 속에 펼쳐진 등장인물들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림 8) Paper B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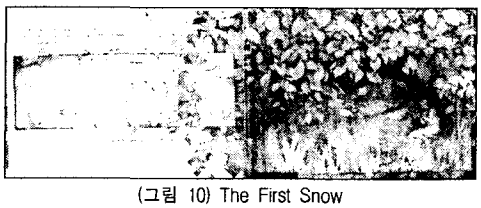
「The First Snow, SCHOLATIC PRESS, DAVID CHRISTIANA 그림」에는 계절의 분위기와 등장인물의 감정에 어울리는 색조변화를 주었다.

여름은 밝은 갈색과 저채도, 고명도를 적절하게 혼합한 초록색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싱그럽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림의 전반적인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차가운 파란색의 하늘을 표현하여 앞으로 다가올 계절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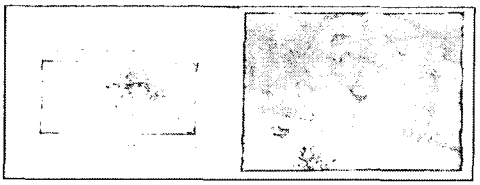
(그림 9) The First Snow

또한, 겨울로 변하는 과정의 장면에 있어 저채도, 저명도의 어두운 색을 저채도의 초록색과 함께 표현하여 암울하고 쓸쓸한 분위기와 이미지를 어린이에게 전달한다.



(그림 10) The First Snow

그러나 어린 요정이 겨울을 만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고명도, 저채도의 밝은 파란색조를 화면가득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겨울의 차가움과 함께 신비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1) The First Snow

결론

어린이그림책은 각 장의 화면 안에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색채와 함께, 글과 그림이 어울리는 화면 구성, 인물과 사물의 풍부한 감정표현, 색과 선, 면의 조화로운 구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감이 들어 있는, 그림이 이야기하는 세계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그림책은 어린이가 페이지를 넘김에 따라, 색의 변화나 구도의 변화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그림책의 리듬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알브스넛(Arburthnot)은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은 글의 내용을 진실 되게 표현해야 하며, 글과 그림이 동시성을 가지고, 기, 승, 전, 결의 사건진행에 따라 리듬감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어린이는 명도가 높고 따뜻한 색을 좋아하지만 주제와 내용에 따라 어두운 색이나, 검정색, 흰색 등의 적절한 조화도 좋으며 일러스트레이션 속의 세부묘사도 훌륭해야 한다고 말한다.[18]

따라서,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어린이에게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색채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 사고는 단순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포착하여, 단순하면서도 이야기의 내용과 분위기가 담긴 색채를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는 그림을 보고 등장인물이 겪는 과정을 자기가 대신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좋은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감정표현은 그 느낌에 있어서 시각으로부터 한층 더 강렬한 인상을 받는다.
2. 그림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줄거리의 흐름을 고려한 색채표현으로 이야기 구성에 따른 연결성이 좋아야 하며, 각 장의 흐름을 유도하고 등장인물의 감정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가령, 기쁘고 즐거운 감정의 표현은 명도, 채도가 높은 따뜻한 계열의 색채가 효과적이며, 슬프고 두려운 감정상태 또는, 놀라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명도, 채도가 낮은 색을 사용해야 한다.
3. 시각적 유도를 위한 공간성이 있어야한다. 적절한 생략과 긴장의 화면구성으로 내용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반복적이며 강약의 리듬을 포함해야 한다.
4. 5~6세 미만의 어린 유아와 연령이 높은 아동이 좋아하는 색채는 다르다. 어린이그림책에서 적절한 원색의 사용은 효과적이지만 지나치게 화려하고 원색위주의 색채만을 사용한다면, 어린이에게 잘못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에 맞는 다채로운 색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19] 그러나 다채

18) 이상금, 장영희 공저 : 유아문학론, 고문사, 117-128, (1999)
19) 마쓰이다다시 지음, 이상금 역 : 어린이와 그림책, 샘터, 183, (1990)

로운 색을 사용하느냐 흑백의 색을 사용하느냐 화면의 일부분만을 채색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야기의 성격이나 본문의 내용을 고려한 색을 사용해야 한다.

5. 어린이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색채에는 일러스트레이터의 풍부한 상상력과 독창성이 가미되어야 한다. 일러스트레이터의 독창적인 색채는 어린이에게 풍부한 예술적 심미안을 길러줄 수 있다.

6. 인물과 사물의 모습과 감정상태를 충분히 표현해야 한다. 기쁨, 슬픔, 즐거움 등의 감정 표현은 물론, 행동에서 나타나는 성격에 알맞은 색채표현으로 인물과 사물의 움직임과 주변상황과의 관계형성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물과 사물이 가진 내면상황 즉, 감정 상태를 색상이 지닌 성격에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

7. 배경과 주제를 구분 지을 수 있고 그림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해야 한다.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주제와 배경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표현은 어린이에게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우며, 시선 집중을 유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장의 화면구성에 있어 리듬을 주고 주제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형태와 색채의 차이를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색채의 밝고 어두움, 선명하고 칙칙한 톤의 차이를 두어 주제를 선명하고 뚜렷하게 표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출판되고 있는 어린이그림책은 지식과 정보가 많이 담기거나, 지나치게 교육적 목적을 두고 제작되고 있으며,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림책 또한, 교육적 내용과 의도를 가지고 제작되기 때문에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이 충분한 흥미와 재미를 가질 수 없다.

어린이그림책을 통해서 전달되는 감정과 정서는 어린이가 예쁘고 귀엽게 성장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희·노·애·락 등의 풍부하고 다양한 감정과 정서이며, 어린이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한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형태와 색채표현에 있어서도 하늘은 파란색, 나뭇잎은 초록색이라는 사실적이고 정형화된 묘사로서 어린이들의 미적 체험과 상상력, 창의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의 개성과 창의성, 그리고 예술성을 바탕으로 실험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책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색채의 상징성과 색채감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어린이그림책은 어린이에게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 상상력을 주는 문학으로서 수준 높은 일러스트레이션은 내용의 깊이와 의미를 현실성 있게 반영한다. 그리고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는 색채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얻은 색채의 감정적 효과에 대한 논리적 분석은 차제에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어린이그림책을 제작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어린이들이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그림책의 결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김정 저, 아동의 미술교육 연구, 창지사, 1989
- 김재은, 소상진 공역, 아동화의 심리분석, 학연사, 1986
- 이상금 엮음, 어린이와 그림책, 샘터, 1990
- 이상금 엮음, 어린이그림책의 세계, 한림출판사, 2000
- 이경성 저, 예술이란 무엇인가, 일지사, 1984
- 김학성 편역, 디자인을 위한 색채, 조형사, 1998
- 김현희, 박상희 공저, 유아문학 교육, 학지사, 1999
- 이상금, 장영희 공저, 유아문학론, 교문사, 1999
- 문형준 지음, 아동미술 실기교실, 미진사, 1997
- 이현섭, 김상윤, 추정선, 조선희 공저, 아동발달심리, 학지사, 1999
- 김중철 역음, 그림책론, 어린이도서연구회,
- 어린이도서연구회, 동화 이렇게 보세요. 웅진닷컴, 1996
- B. Amoss & E. Suben, Writing and Illustrating Children's Books for Publication, WRITER'S DIGEST BOOKS, 1995
- T.P.Bicknell and F. Trotman, How to Write Illustrate Children's Books and Get Them Published, WRITER'S DIGEST BOOKS, 2000